문화수도 위한 긴급제안

광주 도심 리모델링

❶ 亞문화전당, 도심연계가 생명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맞물려 광주 도심의 미래상에 대한 각종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의 신년기획 '문화수도조성 위한 긴급제안-광주 도심 리모델링'은 인본주의 건축을 지향하는 건축 전문가 그룹 '나무심는 건축인'들이 긴급제안하는 광주도심의 새 모습에 대한 탐구다. 전문 건축가들이 바라보는 아시아 문화전당, 친환경적인 도시건축, 도심정비와 행정, 도심경관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연재한다.

문화시설만으로는 한계
쇼핑·오락 등 복합화해야

독일 베를린 소니센터는 문화, 숙박, 주거, 영상,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복합문화센터로 꼽힌다.

신석균 광주대 교수·푸른공간연구소장

도시는 생명체 처럼 여러 기능이 복합되어 성장, 발전한다. 특히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몰려드는 도시의 중심(都心)은 기억과 흔적을 지닌 채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 광주 도심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광주를 탈바꿈시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도로로 둘러싸인 교통광장인 5·18 분수대가 자동차 접근이 차단된 시민들의 전용광장으로 바뀌고 5·18 관련 시설물을 제외하곤 모든 공간이 새롭게 변모한다.

광주도심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 놓게 될 아시아문화전당의 특성은 외부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남로에서 접근 가능한 5·18 분수대 주변의 외부공간과 지하철 도청역에서 접근 가능한 선큰(sunken) 외부광장이 그것이다.

광주도심 한복판에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거닐고 휴식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및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외부공간이 형성된 것 그 자체가 광주도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한다. 이것은 무등산, 폐선녹지와 함께 광주의 대표적인 상징 공간이 될 수 있다.

오는 2010년 완공될 예정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조감도.

문화창출 원동력은 '다양화'

아시아문화전당과 세계 유명 복합문화시설을 비교해보면, 외부에 커다란 광장 또는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되었다는 점이 유사하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이 공연장, 전시실, 정보실, 어린이용 문화공간 등 주로 문화관련 시설로 구성된 반면, 외국의 복합문화시설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업무, 오락 등 다양한 시설이 동일 대지 내에 복합화되어 구성되어 있다.

베를린 소니센터는 문화, 숙박, 주거, 영상, 업무 기능이 복합화되어 있으며 일본 록본기 힐즈는 문화, 주거, 숙박, 쇼핑몰 등이 복합화되어 있다.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에 또 다른 이용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미래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관련 시설이 대부분으로 목적성을 가진 한정된 계층의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 외국의 경우처럼 대지 내에 구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은 주변의 기존 시설이나 새로운 시설과 연계되어 문화전당이 갖지 못한 복합기능을 지원받아야 한다.

반대로 현재 광주도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남로 프로젝트,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과 같은 도심정비 및 개발 사업 역시 문화전당과 연계를 가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계림동, 학동, 방림동 등 주변 주거환경정비 및 주거재개발계획과 사직공원, 광주공원, 광주천변, 폐선녹지 등 생태친환경적 공간에 대한 정비개발도 마찬가지다.

금남·충장로 개발사업 연계

광주 도심에는 금융과 업무시설, 상업 및 쇼핑시설, 예술문화시설, 그리고 주거시설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더러 공원과 천변, 폐선녹도와 같은 녹지 오픈스페이스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도심 여건을 고려하여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를 연계하여 정비, 개발한다면 광주도심은 거대한 복합도심으로 조성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광주도심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고 차별화된 도심 이미지가 확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 차원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 재정비 및 재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의 복합문화 시설처럼 아시아문화전당이 침체된 광주도심을 활성화시켜 도심의 새로운 방향과 모습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느냐는 주변과의 연계에 달려 있다.

〈sugkyoon@hosim.kwangju.ac.kr〉